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열납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열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여 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뜯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여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 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여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멍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윗불 위의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개역, 레위기 1:1-17]

레 위기의 책임이 왜 레위기입니까?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기 때문에 마태복음이라고 합니다. 물론 마태복음의 주인공은 마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전하여 준 분이 마태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레위기는 레위에 관한 책임입니까 아니면 레위가 전해준 책임입니까?

레위 족속이 해야 할 일을 기록했기 때문에.

가장 근접하고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감사합니다. 레위기에 레위에 관한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어도 없습니다. 억지로 찾아보면 레위란 이름이 한 두 번 쯤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레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일을 맡은 자들이 레위 족속이어서 이 책을 레위기라고 합니다.

주된 내용은 제사 드리는 일, 정결에 관한 것들입니다. 제사 드리는 것과 정결하게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출애굽기를 기록합니다. 출애굽기에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맨 마지막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레위기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성경책 중에서도 제일 재미없는 책이 레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 속에 피흘린 예수님이 보입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가 되는 책임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 재미도 없지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보물지도보다 더 소중한 책임입니다. 보물을 찾을 수 있는 보물지도라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냥 쳐박아 두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몰라도 보고 또 볼 것입니다. 레위기가 그런 책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말이 곧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크나큰 복입니다.

2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고 합니다. 소나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상태에서 소나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모든 재산을 다 내 놓아야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모든 재산을 다 내놓고 하나님께 가겠습니까?

.....

좀 곤란합니까? 모든 재산 다 내 놓으면 하나님께 올 수 있다고 하면 내 놓고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야죠.

대답이 느린 것을 보니 재산이 많이 아까운 것 같네요. 이단 추종자들을 보세요. 이단에 속아서도 모든 재산을 다 내놓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참 생명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재산을 다 내놓고 오라고 그러면 가야죠. 당연히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소나 양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어쨌든 이 땅에서도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다 안 내도 된단 말입니다. 소나 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오라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는 말에 크게 분노하면서 “요단강에 씻는다고 이게 나올 수 있느냐? 못한다!”고 돌아갈려고 할 때 현명한 부하가 뭐라고 합니까? 나아만 장군을 향해서 “아버지여, 이것보다 더한 걸 요구한다 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라고 합니다. 문둥병은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그가 가졌던 모든 명예와 부와 모든 가족을 버리고 죽은 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올 수만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할 참인데 까짓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고 하는데 못할 것 뭐 있습니까?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병을 고쳤죠. 문둥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요단강에 일곱 번 목욕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한 것도 하라 하면 해야지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문둥병보다 더 심한 병에 걸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아니 전 재산이 아니라 가진 것 다 내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가야죠!

요셉이 애굽에 있으면서 부모님과 형제 식구들을 다 불러왔습니다. 그때 부탁을 한 가지 합니다. 너희는 가서 빨리 아버지와 내 형제 내 식구들을 다 데려 오라면서 부탁을 한 가지 합니다.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고 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오라는 겁니다. 그 살림살이라는 게 전부 구닥다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디로 갑니까? 요셉이 살고 있는 으리으리한 곳으로 가는데 쓰던 걸 들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 좋은 곳으로 오면서 뭣하러 가져올 것이냐? 다 버리고 오라고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다면 모든 것 다 희생하고라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면 우리가 무엇에 미련을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나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으로 다가와서 모든 재산을 다 바치고 나를 따르라고 하거든 “사이비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 삶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어째서 전 재산을 다 바치라고 하느냐? 그러면 “아, 이단 이단이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이전의 설교(하나님 앞으로, 2001.5)를 조금만 되풀이 하겠습니다. 소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안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소도 안수를 받나요? 사람만 안수하는 줄 알았는데... 드리기 전에 제물에 안수를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소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이 소는 죽는 겁니다. 나 때문에 이 소가 죽는다는 것이 안수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치는 제물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입니까? 나의 죽음입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제물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소고기, 양고기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별식으로 비둘기도 자시나요? 하나님께서 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드리라고 합니까?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마는 간단하게 말씀 드리고 오늘은 다른 내용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전부 그림자입니다. 진짜 제물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제물이 있기 때문에 이 제물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소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진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소나 양으로 예물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나 양을 드릴만큼 가정 형편이 안되는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비둘기요.

소를 바칠 형편이 못 되면 양이나 염소로 예물을 드리고, 양이나 염소도 부담이 되면 비둘기를 드리라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와 양의 가격차가 몇 배쯤 납니까? 대충 열배 정도 되나요? 가령 소 한 마리에 2백만원쯤 하고 양 한 마리가 20만원쯤 되나요? 대충 그 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비둘기는요? 2만원 될까요?

2000원.

그래요? 그럴 형편도 안되면 산으로 잡으러 가면 되지 않습니까? 아마 통닭 한 마리보다 싸다고 봐야 될 겁니다. 소가 안되면 양이라도 드리고 양도 안되면 비둘기라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약하실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이야기 속에서 적어도 신이라는 분이 제물을 깎아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어요? 심청이 아버지가 눈을 뜨는데 필요한 것이 공양미 삼백석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집에 공양미 3백석? 이게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300가마보다는 더 많은 것 같은데 좌우간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만들어 낼 방법이 없으니까 처녀가 팔려가는 거죠. 좀 깎아주면 안되나요? 동화든지 전설이든지 어디든지 신이라는 존재가 제물을 깎아준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편이 안되면 열배 백배 천배까지 깎아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박력이 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좀 약해 보입니까?

.....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약하다고 하기에는 입이 잘 안 떨어집니까? 그러나 본문 보세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약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약하실까요? 적어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되시는 분이 “소 가지고 나오라” 그랬으면 그 한마디로 끝내야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일까요? 아니면 너무나 너그러운가요? 너그러운 것도 보통 너그러운 정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약한 자세를 보이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뭘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겁니다. 부자도 오고 가난한 자도 오고 능력 있는 자도 오고 능력없는 자도 오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대한 양보하시면서 누구든지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지 봅시다. ‘너희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겁니다. 와서 뭐하는 데요? 목마른 자가 불러왔으면 와서 뭘 사먹어야 되죠? 물을 먹어야지요. 돈 없는 자도, 목마른 자도 오라 해 놓고 값 없이 뭘 사라고요? 와서 물 말고 물보다 더 나은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입니다. 돈 없는 자도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러면 물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는 약속입니다. 요는 ‘돈 없다’ 소리하지 말고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은 여러분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뭔가 일을 좀 해 보자고 그러면 “능력이 없는데요.” 잘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 소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겁니다. 흔히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갑시다!” 하면 비꼬는 투로 “교회도 돈이 있어야 다니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보니까 돈 있는 사람만 사람 대접을 받던데요?”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소가 없으면 양이라도, 양이나 염소 형편이 안되거든 비둘기를 들고라도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뜻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불신자가 교회 오는 것을 부담스럽게 만들었다면 크게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 갑시다 하면 어떤 분들은 제가 행실이 이 모양이 돼서요.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노름도 열심히 하는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갑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대답은 양도 염소도 없거든 비둘기라도 들고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없으면 어떻게요?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2천원이라고 하셨는데 빈손으로 오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정 없거든 빈손으로도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얼 가지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라는 초청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뭘 들고 오지요?

빈손.

빈손 들고 오는 것도 들고 온 겁니까? 그래요 빈손 들고 돌아옵니다. 아니 빈손보다 더 못한 형편으로 돌아옵니다. 입고 있는 옷 다 벗기고 새로 다 해 입혀야 될 판이니 빈손 들고 오는 것보다 더 험한 꼴로 돌아옵니다. 그 아들을 아버지가 정말 기꺼이 맞이하지요. 아들은 아마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반겨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하기는 쉽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기는 훨씬 어려워요. 어느 때 올지 어떻게 압니까? 나갈 때 모습 그대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거지꼴이 되어서, 사람이 바뀌어서 돌아옵니다. 그러나 멀리 나타난 것을 보고 아버지가 바로 알아본다는 것은 그런 꼴로 올지라도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게 없고 내 능력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아무 것도 필요 없으니 일단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우리에게에는 없습니다. 내가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지만 사실은 내게 하나님께 드릴만한 제물이 없습니다. 설령 소를 들고 오고 양이나 비둘기를 들고 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참 좋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잘 고를 줄 모르시나봐요. 황소가 맛있습니까? 수소가 맛있습니까?

암소요.

황소와 수소 중에서 고르라는데 웬 암소입니까? '암소 한 마리라는 간판을 옛날에 봤는데 불고기 집 간판에 '수소 전문'은 없더군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바치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고기 맛을 잘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자를 좋아하셔서...

기막히는 답입니다만 저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이단 소리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기가 좋아서 수소를 가져와라 양을 가져와라, 태워 놓고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아, 향기 좋다!'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며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죽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서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지폐 있지요? 종이돈. 엄밀히 말하면 종이돈이 아니고 일종의 형질입니다. 지폐는 그 자체로는 아무데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주는데 왜 물건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원래 지폐의 기원은 금 보관증서입니다. 은행에 금을 보관해 놓았다는 증서로 준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은행에 가면 언제든지 금과 바꾸어 줬습니다. 그렇게 바꾸어주는 지폐를 태환지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항상 이 증서와 금을 바꾸어 주다가 얼마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굳이 바꾸어 줄 필요가 없더라고요. 가져가 봐야 잃어버리거나 닳으니까 금은 아예 은행에 가만히 놓아두고 보관증서만 통용시킨 겁니다. 지폐가 그렇게 생긴 겁니다. 만약에 은행에 금이 싹 없어지면 지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라는 식귀가 있었습니다. 망명정부는 아무런 재산이 없어요. 그 정부가 열심히 지폐를 만들어 돌렸습니다. 누가 그것을 지폐로 쳐주나요? 그 지폐를 뒷받침해 줄만한 금이 없는 한 이 지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언젠가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어찌다 잠시 보다가 말다가 해놓으니 제목과 내용이 뒤죽박죽이 되어 제목은 잘 모르겠고 좌우간 폭탄을 지하철에 터트리고 경찰력을 다 빼들려 놓고 미국의 중앙은행 터는 장면 나오네요. 세상에! 금을 대형트럭 여러 대에 실어갑니다. 웬 금이 그렇게 많아요? 실제로 그 금이 다 털리거나 없어지면 달러가 전부 무용지물이 됩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로 드리는 이 예물 자체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지폐에 불과합니다. 그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시고

그것을 기쁘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결국은 우리를 보고 소로 예물을 드려라 아니 그것도 안되면 양이나 염소로 드려라 그것도 안되면 비둘기라도 들고 하나님께 나오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자신이 기뻐 받으실 예물을 스스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우리더러 나오기만 하라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소나 염소, 비둘기 이 제물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효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비둘기 제사를 좋아하시겠습니까?

똑같아요.

어떻게 소하고 비둘기하고? 이백만원하고 이천원이라면 천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게 효력이 똑같아요? 똑같습니까? 그러면 소를 드리나 비둘기를 드리나 하나님 받으시기에 똑같은 것이면 교회에서 내가 좀중한 일을 한다고 쟈 필요가 없네요. 아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무슨 일을 하면 소정도의 예물이 될까요? 설교하는 정도면 소정도 될까요? 비둘기는요?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면 이게 비둘기에 해당될까요?

화장실 청소.

화장실 청소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청소 제대로 안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한가! 각자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저 분이 하는 저 일은 하나님께 소를 바치는 것 같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께 비둘기를 바치는 것 같다고 생각해도 마지막 결론은 뭘니까? 비둘기나 소나,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효력이 똑같은 것이면 더 귀하고 덜 귀한 게 없네요.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작은 일 한다고? 교회에서 빛이 덜 나는 일을 한다고요? 교회 안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떤 일을 맡았든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소중한 일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좀 빛이 나는 일을 한다고 아이들 말로 재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더 큰 상을 주시고, 놀라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실 거라고요? 그런 생각하는 것을 말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보잘 것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귀한 형제란 것을 잊지 맙시다. 혹시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렇게 보잘 것 없는 일 아니냐고요? 아니요. 비둘기를 들고 가나 소를 가지고 가나 하나님께서 같이 받으신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는 값어치 없고 사소하고 무시해도 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하신 것 중에 제일 작은 것은 뭘니까?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지금은 물도 돈주고 사는 시대가 되어서 냉수 한 그릇도 좀 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냉수? 돈 드는 것입니까 힘이 드는 것입니까? 아무 가치없는 작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어느 임금님에게 드렸으면 조금 값이 나갔을텐데, 누구에게?

어린 아이에게.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숫자에도 넣지 않았던 어린 아이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조차 예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에는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다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창하게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더듬더듬 말도 잘 안되는 기도를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좀 유창하고 멋지고 그런 기도를 더 좋아하시겠지요?

유창하고 멋진 기도를 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뒤 한쪽 구석에서 말도 안되는 기도를 어설픈데 하고 울고만 갔던 세리들,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진짜 기도로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와 기준이나 보는 눈이 확실히 다른가 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얼마나 담겨 있느냐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멋진 기도, 그것도 하실 수 있으면 해야 합니다. 거기에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가끔은 구역예배에서 기도도 못 하는데 느닷없이 시켜서 당황한 적이 적잖게 있지요? 이게 기도가 되느냐 마느냐? 관계없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더 좋아하십니다.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회라고는 생판 모르는데 예배 참석했더니 모처럼 오셨는데 하면서 기도

를 시켜버렸습니다. 시작은 했는데 끝을 못 맺어서 이리갔다 저리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분이 재치있게 이어서 기도하고 끝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앞뒤 순서를 모르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마음이면 끝을 맺든 못맺든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를 드리나 양을 드리나 비둘기를 드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똑같이 받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무얼 드리시겠어요?

소.

소를 드려요? 비둘기를 드려도 같은 것으로 받는다는 데요?

하나님께서 말은 이렇게 하시지만 그래도 큰 걸 좋아하실 것...

그것은 집사님 마음입니다.

가진 게 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정말 행복하시겠습니까. 가진 게 소밖에 없으면... 우리 교회는 정말 재미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소를 좋아하시겠죠? 그러면 땀을 내서라도 소를 드려야 하나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비둘기라도 가지고 오라고 했지만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비둘기를 드리겠나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아 가지고라도 소를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속으로는 이런 생각하시면서 말만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건 우리가 잘 하는 것이지요. 괜찮다, 없어도 괜찮다 하면서 받아 챙기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정 없으면 비둘기라도 들고 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일까요? 아니, 그냥 해 보는 말씀일까요? 진심입니다.

그러면 무얼 드리시겠습니까? 소를 드려도 될만한 형편인데 양을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레위기 공부하면서 이 질문을 했더니 참 명답이 나왔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드릴 형편으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참 명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딱 부러지게 말씀하시면 될텐데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제물을 여러 가지로 지정하셨느냐는 것은 우리를 생각해서입니다. 우리 형편을 잘 생각해서 형편에 맞게 드리라는 겁니다. 무리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남이 이렇게 하니까 형편에 어울리지 않게 무조건 큰 것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하시겠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범죄한 이후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희망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오해입니다. 한 번쯤은, 얼마 동안은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입니다. 잠시 잘 나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코 이 땅에서 만족스런 삶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열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길을 열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또 감사드릴 것은 아무나 오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는 뇌물을 가져다 주는 것도 어렵습니다. 아무에게나 불쑥 들고 갔다가는 문전박대 당하기 딱 알맞습니다. 힘있고 권세있는 사람에게 무언가 뇌물이라도 좀 바쳐야 되겠는데 바로 들고 가면 안됩니다. 누굴 찾아야 되지요?

비서.

비서면 다행이게요. 권세있고 힘있는 사람 밑에 어떻게 조금 연줄이라도 닿는 사람에게 가서 통사정을 해서 겨우 맡깁니다. 사실 별 것도 없으면서 되게 위세 부러가면서 받아줍니다. 일부는 자기가 착복하기도 하고.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학교 아이들 중에 가끔 사고쳐서 갇힌 경우가 있어요. 그 아이들 때문에 학부모와 같이 가보면 순진한 학부모들이 어떻게 돈을 좀 모아가지고 들고 갑니다. 검사가 받을까요? 절대 안 받습니다. 어떻게라도 해 볼려고 애를 쓰면 검사에게 불쑥 내밀어 가지고는 안됩니다. 대충하고 넘어갑니다. 계속하면 안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아오라 해 놓고 우리가 들고 온 비둘기를 하나님께 직접 들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느 존전에 무얼 들고 왔어요? 그렇게 온화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 드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오라 하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그것도 형편이 너무 어려워져 안되면 비둘기라도 들고 오라고 쉬운 방법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으면 하나님께 무얼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걸 배우는 일부터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교회 가서 다른 사람 눈치도 보이니까 헌금도 해야 되고 교회 일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이 느껴지기 전에는 그렇게 무리하게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예배 참석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일단 열심히 배우십시오. 배우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정말 크구나. 그 다음부터 어떤 제물이든지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선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일에 더 힘을 써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더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언젠가 부활절 헌금할 때에 부활절 헌금봉투를 받아들고 제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봉투에 그런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액수를 적는 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데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나요? 그런 고민을 안 해보셨어요? 어째 저 혼자만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하고 쫓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데 그 밑에 얼마나 써야 돼요? 고민 많이 했습니다. 결론은 헌금 주머니를 커다랗게 만들어 가지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구요. 아니 무얼 드리겠어요? 만원을 쓰겠어요? 십만원을 쓰겠어요? 백만원을 쓰겠어요? 백만원을 쓴들 예수님께서 내 몸값이 이것밖에 안되냐고 물어보시면... 헌금 봉투를 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고민스럽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소도 양도 비둘기도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은 아까 우리의 마음이라 했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인들 뭐 그리 가치가 있겠습니까마는 예수님께서 우리대신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에 편승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 제물을 받으시는 거기에 나를 끼워서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그 제물에 나를 얹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제물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나마 그것도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옛날에 우리 누나가 ‘하나님이 너무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더라구요. 찬송가를 피뎌고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흘려 죽었다’ 쪽 내려가서 그 밑에 너 날 위해 뭐 하느냐 뭐 주느냐는 가사의 찬송이 있거든요. ‘아, 예수님께서 뭘 바라고 이러신 것은 아니잖아?’ 만약 여러분에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피흘려, 몸버려 이 고난을 당하였는데 너 날 위해서 뭐 주느냐? 뭐 하느냐고 묻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걸 바라고 돌아가신 것은 아니잖아? 찬송가 잘못 되었습니까? 너 뭐 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무얼 요구하고 계시길래 그러냐구요? 그 찬송가 분명히 많이 부르셨을텐데 고민 좀 하면서 부릅시다. 성경 읽을 때도 고민 좀 하면서 읽읍시다. 찬송가도 경우에 따라서 고민을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부를 찬송이 못 된다는 생각이 들면 부르지 마세요.

내 너를 위하여 이렇게 몸을 주었는데 너 무엇하느냐? 믿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돈 내놓으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죽은 것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진짜 제물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보고는 품만 잡으라는 것입니다. 비둘기라도, 작은 정성만이라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